

벤야민의 “폭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바라본 웹툰 “비질란테”

유병수

April 23, 2021

웹툰 “비질란테”는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이버렉카 혹은 자유지상주의적 세계를 이상화시킨 작품이 아니다. 그런 해석은 마치 마블코믹스에 초인적인 영웅들이 나온다고 해서 “시빌 워” 같은 작품을 미국식 보수주의의 발로로 보는 것과 같다. 시빌 워가 사실은 합의의 윤리와 그를 위협하는 도덕적 딜레마들에 대한 개인들의 해결책을 군상극으로 보여주듯, 비질란테 역시 “싸이코들의 슈퍼 맨 놀이”라는 기믹 하에 “법 그 자체가 제기하는 도덕적 문제”들에 관해 김지용, 조현, 최미려와 같은 여러 군상들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벤야민의 “폭력에 대한 비판”에 비추어볼때, 비질란테는 완벽할 정도로 벤야민의 텍스트에서 생략된 설명들을 보충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현실 사건에서 따온 모티브들은 기믹으로 잘 작동해서 (현대의 독자들이 보기엔 지루할) 벤야민의 텍스트를 거의 완전히 내용 속에 감춰버렸다. 마치 시빌 워를 윤리적 문제 같은걸 생각하지 않고 보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비질란테 역시 벤야민의 텍스트를 전혀 알지 못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오히려 텍스트를 모르고 읽을 때, 독자는 서사 속에 이입하고, 인물들의 상황에서 “역지사지”함으로서 더 고양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바로 그 고양된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길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비질란테의 중심질문은 “폭력과 법, 그리고 정의의 관계”이다. 이 질문은 극 초반 주인공인 김지용의 말로 형상화된다. “법 法이라는 한자는 水 물 수 변에 去 갈 거 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이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상을 순리대로 흐르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고대 중국, 요순시대에 해치라는 신수가 있었다고 한다. (중략) 해치는 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그렇다. 물 水와 갈 去로 이루어진 法이란 한자는 물 흐르듯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을 응징하는 해치가 간다는 뜻이다. 그래, 이게 나의 법이다.”¹ 김지용은 악인에게 사적 제재를 가한다. 다만 그는 모든 악인이 아닌, 실정법으로 처벌이 안 되거나 혹은 여전히 교화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는, 그런 악인들을 응징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김지용과 경찰의 대립은 자연법적 정의와 실정법의 적법 절차간의 대립이기도 하다.

벤야민의 “폭력에 대한 비판” 역시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립으로부터 시작한다. 벤야민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을 제외한다면, 폭력은 법과의 관계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인간

¹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네이버 웹툰. Naver, 2020, 16화.

사이의 폭력은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위, 즉 법을 만들고 그걸 따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과 폭력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벤야민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각각 폭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자연법 – 신 혹은 인간의 마음 자체에 내재한 도덕을 따르는 관점 – 에 따르면, 폭력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당해진다. 반대로, 실정법에 따르면 폭력은 성문법으로 인정된 영역 아래에서만 이뤄질 때, 오직 그때에만 정당해진다. 비질란테 초반에 나온 경찰과 김지용의 대답은 이를 은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에게 공감하는 독자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복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상황은 도저히 정당하게 보기 힘들다. 따라서 김지용은 자신이 직접 해당 범죄자들을 응징하며,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자연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실정법의 한계를 매꾸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벤야민은 사실 이런 구분이 통속적이어서 폭력과 법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 두 입장 모두 “정당한 목적은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만 추구되어야 하고, 정당한 수단은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만 추구될 수 있다”²는 불명확한 전제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그 목적의 정당성에 의해 수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며, 실정법은 수단을 정당화시킴으로써 그 목적의 정당성을 “보장하려고” 한다.”³ 하지만, 벤야민은 이 전제를 의심한다. 만약 이 전제가 참이라면, 우리는 폭력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없이, 오직 개별적인 폭력의 적용이 정당한 법적 목적과 정당한 수단을 지녔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개별상황마다 가해자의 수단과 목적은 전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제를 넘어서는, “정당한 목적과 정당화된 수단을 동시에 판단하는 상호의존적인 기준”⁴을 찾기 위해서 벤야민은 폭력과 법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비질란테에서 이런 전제에 관한 의심은 김지용의 살인 욕구로 표현된다. 작중 김지용의 행동 동기는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실정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과정에서 그는 살인이 주는 쾌락에 눈뜨게 된다. 물론 본인은 자신이 그 쾌락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범죄자의 응징을 통해 정의감과 동시에 살인 욕구를 채워나가게 된다. 아무리 김지용의 정의에 공감하는 독자라도 그의 살인욕구는 결코 없다. 김지용이 내세우는 정의는 사실 빌미이고, 결국 김지용은 폭력이 좋아서 행하는 게 아닐까? 작중 인물 스스로가 의심하는 대로? 설령 김지용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우린 김지용의 행동까지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극은 자연스럽게 벤야민이 제기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을 동시에 판단하는 상호의존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독자들이 질문하게 만든다.

벤야민은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위해 법과 폭력의 관계를 고찰한다. 첫 번째로, 폭력은 법을 제정하거나 (법제정적 폭력) 혹은 법을 수호하는 (법수호적 폭력) 역할을 한다.⁵ 경찰 행위, 혹은 정당방위처럼 법이 인정되는 폭력을 법수호적 폭력으로 부를 수 있다.

²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English and 한국어. Trans. by 이성원. In: *자율평론* 3 (2002), p.1.

³ Ibid. p.2

⁴ Ibid.

⁵ “Benjamin argues that the intimate relationship of violence and law is twofold. Firstly, violence is the means by which law is instituted and preserved. Secondly, domination (violence under the name of power (Macht)) is the end of the law” Signe Larsen. “Notes on the Thought of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In: *Critical Legal Thinking* (2013). URL: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3/10/11/notes-thought-walter-benjamin-critique-violence/>

이들은 합법적인 권력의 이름 아래서 행해질 때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벤야민은 이를 “법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부른다. 즉 실정법에 의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준된 폭력을 의미한다. 반대로 법 제정적 폭력은 전쟁처럼, 역사적으로 인정된 법 (예를 들어 “국경, 경계” 같은)에 도전하고 새로운 법 (혹은 경계)를 만들기 위해 행사되는 폭력을 말한다. 벤야민은 이를 “자연적 목적”으로 부른다. 오직 도전자의 자연법 하에서만 정당하고, 실정법에 비출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벤야민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지배”이다.⁶ 여기서 지배란 어떤 힘에 근거한 폭력 행사를 의미한다. 그 힘이 골목의 주먹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지만, 경계 짓기(국경 확립하기)는 바로 지배의 주요한 예제이다. 예로서, 항상 모든 국가 간의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종결된다. 이 평화협정은 그 자체로 승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협정은 승자와 패자를 모두 지배한다; 이긴 자와 진 자 모두, 협정에 나온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이다.⁷ 즉, 승자건 패자건 협정을 넘어서는 행위는 새로운 전쟁 (새로운 법제정적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법제정적 폭력의 목적은 결국 지배, 즉 힘(권력)에 근거한 각 정치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정하는 데에 있다.

비질란테에서 김지용은 법 제정적 폭력을 상징한다. 그는 “법의 구멍”을 메꾼다는 미명하에,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 범죄자들을 응징한다. 따라서 분명히 김지용은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의 “선을 넘었고”, 또한 실정법을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맞춰 바꾸라는 요구를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볼때 김지용은 - 그의 행동이 법의 원래 목적(치안과 응보)을 달성한다 해도 - 실정법의 한계를 넘은 범죄자일 뿐이다. 따라서 비질란테를 잡으려 하는 조현과 남영일은 법 수호적 폭력을 나타내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같은 경찰 조직내에 법제정적 폭력과 법수호적 폭력이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질 것이다. 벤야민은 두 폭력은 항상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두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다고 언급한다. 바로 경찰과 사형제도이다. 사형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의 물리적 생명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법 수호적 폭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은 사형수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그를 법의 적용영역 바깥으로 몰아내버린다. 죽은 자에 대해 우린 공소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내용은 같으나 적용대상이 살짝 달라진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음을 재천명하는, 법 제정적 성격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를 위시한 여러 경찰행정을 위한 조항은 실정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다른 국가기관이나 시민들보다 더 많은) 폭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한 한국 근현대사가 보여주듯,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권리는 경찰 자신에게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폭력을 용인하고 어디부터 제재할지에 관한 (실정법에 나오지 않은) 경계를 확정지음으로서, 경찰은 법 제정적 폭력을 행할 수 있다.⁸ 그래서 CRG 작가와 김규삼 작가가 김지용과 조현의 소속으로 경찰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폭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면서, 사

⁶ Ibid.

⁷ 벤야민은 아나톨 프랑스를 인용해 이를 설명한다.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다리 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4 에서 재인용 (Anatole France. *The Red Lily. Le Lys Rouge*. 1894. Chap. 7)

⁸ “경찰이라는 폭력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법의 폭력과 동일하거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오히려 국가가 무능해서 혹은 법체계 내에서의 상호규제 때문에 꼭 달성하고자 하는 실제적 목적을 그 법체계 내에서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한계점이 바로 경찰의 “법”이라고 해야 옳다. 그래서 경찰은 법적 조건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에 “치안유지의 이유로” 개입한다. 시공時空적으로 결정된 상황적 산물이기에 형이상학적 범주가 인정되는(그래서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법과는 달리, 경찰기구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본질적 내용도 제공받지 못한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6.

정보다 각 폭력의 기능과 효과를 의인화하기 훨씬 쉽고, 굳이 두 폭력을 의인화하기 위한 배경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기에 서사적 장치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벤야민의 기준을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남영일 및 다른 일반적인 경찰들과 조현 역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영웅 서사에 나오는 경찰과 달리, 비질란테에서 경찰 일반은 절대 무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안양서 반장과 남영일 팀장을 보자. 안양서 반장은 작중 범인인 정덕홍 도주 사건에서 그의 경로(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찰을 배치해 놓았다.⁹ 남영일은 “관상은 과학”¹⁰이라는 대사로 독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비질란테가 김지용임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 아니라, 엄재협이 거악에 연루되어 있음도 정확히 알아챘다. 다만 전자는 정덕홍이 가진 도구(칼)를, 후자는 엄재협이 사주(트럭 충돌)를 피하기에 역부족이었을 뿐이다. 둘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형성의 자유로서는 막을 수 없는 폭력이었다. 대조적으로, 조현은 비질란테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에 신경 쓰지 않고, 보급형 방 씨 듀오(최준식과 짚순이)를 감금하면서 대응한다. 남영일 및 안양서 반장이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따른다면, 조현은 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오직 “법” 그 자체를 수호하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조현은 정의와 상관 없이, 실정법 아래에서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이런 차이는 등장 배경에서도 드러난다. 경찰 조직 내부의 실정법적 목적(치안)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한 안양서 반장이나 남영일 팀장과 달리, 조현은 (김지용으로 인한 실정법의 파괴를 두려워하는) 엄재협에 의해 등장했다. 엄재협은 작중 거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다. 따라서 독자들과 김지용 모두 그가 부패 경찰이라 의심한 것은¹¹ 지극히 당연했다. 다만 그들이 차차 알게되는 것은, 조현은 “들쥐”의 이익마저도 실정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게 제어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현의 과거 경력(남미 파견) 등을 통해서, 실정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했음을 암시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현은 예전부터 김지용을 비롯해 여러 법 제정적 폭력을 진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설정들은 조현을 실정법과 분리되어 실정법을 수호하는 다른 경찰들과 달리 “실정법” 그 자체의 화신(의인화)로 여기게 만든다. 그렇기에 조현과 그 상대가 부딪히는 전장은 실정법이 효력을 잃은 공간이며, 따라서 조현의 승리는 언제나 실정법의 재천명이 될 것이다. 이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보급형 방 씨 듀오(준식이와 짚순이)의 세차장 획득 사건이다. 사람도 죽였을 범죄자인 준식이와 짚순이가 처벌 대신 세차장을 받는 장면은, 네이버 독자 댓글에서도 나왔듯, 일견 불합리해 보인다. 하지만 세차장을 전쟁이 끝난 후 패배자(최준식과 짚순이)가 확정짓게 된 권리로 생각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보급형 방 씨 듀오가 조현과 맞선 시점에서, 그들은 조현이 상징하는 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저지른 살인은 조현으로 의인화된 실정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전범으로서 기소 여부는 온전히 승리자인 조현에 달려있었다. 세탁소는 승리자인 조현이 패자이자 전쟁 포로이자 조현의 조력자로서 방 씨 듀오에게 제공하는 평화협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조현과 다른 경찰들 간의 구분처럼, 벤야민의 역시 오직 “법” 그 자체와 법의 목적을 분리하려 한다. 왜냐하면, 법 수호적 폭력과 법제정적 폭력 모두, 결국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의(법의 목적)가 아니라, 바로 “법” 그 자체, 즉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힘 그 자체이기

⁹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7화.

¹⁰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83화.

¹¹ “이것도, 들쥐, 엄재협이 시킨겁니까?”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78화.

때문이다.¹² 벤야민은 이를 총파업과 징집제를 예로 들면서 설명한다. 파업권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적 총파업은 어떤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별적 파업이 노동자의 실행행위로서, 새로운 법을 세우거나 혹은 기존 법을 지키게 하려는 (준법투쟁) 시도라면, 총파업은 법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며, 따라서 법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¹³ 징집제는 이를 더 명확히 드러내 주는데, 법 자신을 파괴하려는 다른 법들 (혹은 권력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은 그 적용되는 구성원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약한다.¹⁴ 따라서 자유, 평등, 정의 같은 헌법적 가치들은 징집된 군대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징집이 법을 지키기 위함이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현은 “법” 그 자체, 혹은 경계 그 자체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는 엄재협이 시켜서 왔지만, 엄재협 및 그 뒤의 거약을 따르는 것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날 또 다른 폭력을 저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엄재협이 김삼두를 통해 방 씨를 움직임으로써 사실로 드러났다.) 역시 “법”이 그러하듯, 조현은 작중에서 폭력을 자신이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 독점욕이 바로 그가 김지용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지용의 폭력을 자신에게 복무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다시 벤야민이 의심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전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적 폭력과 법 수호적 폭력이, 그 의도된 목적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 그 자신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연법의 탈을 쓰는 실정법의 탈을 쓰는 우리는 그걸 정당하다고 파악할 수 있을까? 법이 폭력과 불가분이고, 법 자신을 지키거나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 행사된다면, 우린 정당성을 법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폭력이 다 법 제정적이거나 법 수호적이라면, 합의되지 않는 실정법과 확인할 수 없는 자연법으로 인해 우린 폭력들에 대해 어떤 “도덕적” 기준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벤야민은 두 가지 다른 폭력 상황을 제시한다;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이 그것이다.

신화적 폭력의 예로서 벤야민은 니오베를 언급한다. 옛날 옛적 그리스 시대에,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의 딸이자, 테베의 왕후로서, 니오베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다. 그녀는 항상 제 아들딸들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 레토 여신과 자신을 비교해 본인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하였다. 레토 여신은 아르테미스와 아폴론만을 자식으로 가진 것에 반해, 니오베는 훨씬 더 많은 자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이 주장을 레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장소에서 한 게 화근이 되었다. 결국 분노한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시켜 니오베의 자식을 죽였다. 물론 아들들은 신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폴론에게 어미 대신 잘못을 빌었지만 아폴론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니오베는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내게는 아르테미스보다 예쁜 일곱 딸

¹² “In capital punishment and police violence alike, the state reaffirms itself: law is an immediate manifestation of violence or force and the end of the law is the law itself.” Larsen, “Notes on the Thought of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¹³ “법적 상황의 객관적 모순, 즉 국가가 자연적 목적으로서의 폭력의 목적을 인정하여 때로는 무관한 눈으로 보지만 혁명적 전면파업의 경우와 같은 위기에는 절대적 권력으로서 대처한다는 엄연한 모순이 표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견 역설처럼 보일지 모르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 때로는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4.

¹⁴ “보편적 징집을 통해 존재하게 된 군대주의의 폭력은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군대주의는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강제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폭력의 이와 같은 강제적 행사는 최근에 폭력의 행사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단순히 자연적 목적을 위해 행사된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을 통해 그 모습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법적 목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되는 폭력이다. 이 경우 사회구성원을 법에(일반징집이라는 법에) 예속시키는 것이 바로 법적 목적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5.

이 남아있다”며 레토의 자식들을 모욕하였다. 분노한 레토는 아르테미스를 시켜 니오베의 모든 딸을 죽였다. 니오베의 남편은 자살했고, 그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펄펄 울다가 결국 돌로 굳어버려서, 지금까지도 그 돌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전해진다.¹⁵

레토가 가한 폭력의 성격은 법과 관련 없는 순수한 화의 표출로 보인다. 이들이 행사하는 폭력도 법 제정적이거나 법 수호적인가? 이에 대해 벤야민은, 니오베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숙명”에 도전했고, 따라서 신은 니오베를 돌로 만듦으로써 인간과 신 사이의 “경계”를 설정했다고 해석한다.¹⁶ 즉, 레토가 자식을 죽인 것은 (이미 존재하는) 신의 경계를 “수호”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경계가 없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던 경계(돌이 된 니오베)를 새로 설정하고 이를 “율법” (신을 비웃지 말 것)으로서 던져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벤야민은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폭력은 결국 법 제정적 폭력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힘을 가진 존재의 폭력은 언제나 그 존재와 피해자의 경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권력)은 신화적 법제정의 원리”¹⁷이다.

잡질란테 조강옥은 비질란테 에서 신화적 폭력을 현시한다. 작중에서 조강옥은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오직 순수한 폭력 표출과 그 희열을 원한다. 또한 그는 다른 모든 누구보다도 작중에서 (그리스 신화적인)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그는 재벌의 부회장이며, 모든 핸드폰을 도청할 수 있고, 자신의 범죄를 덮을만한 충분한 재력도, 또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는 박 과장이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도 가졌다. 생긴 것도 흰칠하니 잘생겼고, 재벌가의 “서자” 출신이며, 동시에 “좋은 생각 카드”로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도 가졌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와 가까운 인물을 찾자면, 바로 니오베의 신화에서 폭력을 행한 아폴론이 떠오를 것이다. 조강옥과 김지용이 살인에서 충족하는 어떤 희열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화적 폭력은 법 제정적 폭력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그렇듯, 그들은 인간을 생각해서 경계 짓는 것이 아니다. 숙명에 도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실정법에 도전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신화적 폭력은 벤야민이 원하는 폭력 비판을 위한 좋은 잣대가 되어주지 못한다. 법 제정적/법 수호적 폭력이 법 그 자체의 지배를 확립한다면, 신화적 폭력은 인간에게 율법을 던져줄 뿐이다. 결국 정당한 폭력은 율법/실정법/자연법 모두를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벤야민은 니오베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숙명에 도전하여 숙명과 싸움을 벌였다”고 말하지만¹⁸, 정작 그 “숙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¹⁵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Britannica. *Niobe*. Britannica, T, 2020. URL: <https://www.britannica.com/topic/Niobe-Greek-mythology>.

¹⁶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의 행동은 단순히 처벌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폭력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가해지는 처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율법의 제정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크다. 니오베의 오만함은 그녀의 운명을 자초한 셈인데 그것은 니오베의 오만함이 율법에 저촉되어서가 아니라 숙명에 도전하여 숙명과 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구명은 틀림없이 승리하며 승리를 통해서만 율법을 천명하는 것이 숙명이다. (중략) 그래서 니오베는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 전보다 더 죄의식을 느끼며 영원히 침묵하는 죄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그녀 자신 돌이 되어 인간과 신의 접경지대임을 알리는 이정표로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0-11.

¹⁷ “법제정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되 이 때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바의 그 무엇이다. 그러나 법제정 순간에는 폭력을 배제하지 않으며, 폭력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목적 그 자체가 법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폭력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그 비호 아래 법으로 제정된다. 법제정은 권력의 수립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폭력의 직접적 구현이다. 정의는 신의 목적제정의 원리이고 권력은 신화적 법제정의 원리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1.

¹⁸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1.

있다. 니오베의 일화를 근거로 한다면, 숙명이란 말은 단순히 삶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당연히, 그 극복해야만 하는 사건이 도덕, 율법 혹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만 존재할리가 없다. 가장 좋은 예로서 소위 열차 문제(Trolley Problem)¹⁹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당신이 오직 한 명을 죽일지 다섯 명을 죽일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인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열차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 숙명으로 인격화된 - “방 씨”와 “쇠돌이”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극 중 방 씨는 주된 악당이다. 작가는 엄재협을 입을 빌려 김삼두 밑에 있다고 해서 실력이 그보다 아래일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이 둘을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취급한다.²⁰ 또한 최미려의 관찰을 통해서, 방 씨가 사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사람을 항상 죽이고 나서 참회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²¹ 결국 극의 절정에서, 사실 방 씨는 어떤 연유에선지 쇠돌이를 범죄에 끌어들었고, 그로 인해 쇠돌이의 딸이 납미로 납치되었으며, 그 딸을 살려 데려오기 위해서 김삼두나 다른 거악들이 시키는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다. 전형적인 열차 문제이다. 당신은 친구의 딸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대신 무고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방 씨 역시 고민 끝에 선택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방 씨를 살인자라고 무작정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정의로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벤야민은 신과 신적 폭력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신은 그리스 신화적 신이 아닌, 모든 곳에 임재하며 무엇이든 결정하는 유일신이다. 우리도, 방 씨도, CRG 작가와 김규삼 작가도, 벤야민도, 열차 문제에서 정답을 알 수 없다. 오직 정의로운 답을 아는 자는 신뿐이다. 따라서 “정의는 신의 목적 제정의 원리이고, 권력은 신화적 법 제정의 원리이다.”²² 숙명이 가져오는 열차 문제는 법이나 인간의 이성인, 오직 신만이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이란 관점은 사실 달성 불가능한데, 방 씨와 같은 극단적 예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발생하는 열차 문제는 애초에 어떤 목적도 그 자체로 정당할 수 없고,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상황에 앞서서” 선과 악을 미리 규정지을 수 없다.

방 씨의 예제는 벤야민이 예로든 십계명 중 제 육 계명인 “살인하지 말 것이라”와 그대로 연결된다. 벤야민은 이 계명을 근거로 살인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다.²³ 벤야민에게 있어 율법, 그리고 법 그 자체는 정의의 측면에선 오직 “행동지침”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동지침은 방 씨 처럼 이미 살인을 저지른 후에는 어떤 도움도 줄수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벤야민의 말은 살인을

¹⁹ 철도를 달리는 열차가 있고, 운전수는 핸들을 틀어서 한명을 죽이거나, 핸들을 틀지 않아서 다섯명을 죽이는 선택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지 묻는 문제이다. Judith Jarvis Thomson. “The Trolley Problem”. In: *The Yale Law Journal* 94.6 (1985), pp. 1395-1415. URL: <https://doi.org/10.2307/1969915>.

²⁰ “김희장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만 여기시면 안됩니다. 현재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란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106화.

²¹ “(목주)반지를 멋으로 오른손 검지에 끼진 않아요. 검지에 낀 건 실제로 기도하면서 돌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반지를, 십자가를 밖으로 하지 않고 손 안으로 돌려 감췄어요. 왜냐요? 신께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 믿는다는 뜻이죠. 당신이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115화.

²²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1.

²³ “그러나 신에 대한 복종을 강요한 것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듯,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명령은 적용될 수도 없고, 통용되지도 않는다. 행위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계율로부터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심판도, 이 심판의 근거도, 인간은 미리 알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행위를 비난하는 기준을 계율에서 찾는 일은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재판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율법과 싸워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율법을 무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개개인의 행동지침으로 존재한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3.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살인 비난의 근거가 “율법”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²⁴

그럼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도? 벤야민은 그렇게까지 허무 주의적이진 않았다. 그는 율법이 우리에게 정의를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벤야민은 애초에 갈등이 폭력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²⁶ 갈등은 비폭력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소위 에티켓을 비롯해 일상적인 개인사에서 우린 수많은 사람의 선의와 그로 인한 미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런 비폭력적 갈등 해결은 이성과 그에 근거한 (거짓 없는) 자유로운 토론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는 법이 접근할 수 없는 이해(understanding)의 영역에 위치했기 때문이다.²⁷ 그는 그 근거로서 법이 기만을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는 점을 든다. 로마와 그리스 등의 정제 성립 이전에는, 법은 언제나 승자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었기에 기만이 굳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만임이 드러나면 승자가 처벌하면 되니까. 하지만 기만임이 드러났을 때 기만당한 쪽에서 분출할 “폭력”이 두렵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 폭력의 법제정적 성격이 두렵기 때문에) 기만에 대해 처벌하게 되었다.²⁸

다만 벤야민은 “예의범절, 공감, 온건함, 신뢰”와 같은 불순하지 않은 비폭력 수단은 오직 간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벤야민은 간접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CRG작가와 김규삼 작가는 바로 “최미려”를 통해서 왜 그것이 간접적인 해결책에 불과한지 보여준다. “최미려”는, 아이러니하게도, 극 중에서 이성과 이해를 상징한다. 그런 인물의 이름을 “최고로 미친 여자”에서 따왔다는 그 자체에서 정말 작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기믹(“사이코패스들의 슈퍼맨 놀이”)에 정확히 주제를 감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하기만 하고, 사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를 일삼으며, 사이코패스마냥 비질란테에게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그녀가 어딜 봐서 이성을 대변하는지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소위 도구적 이성 – 부분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음 정보를 찾아 나서는 능력 – 의 정확한 묘사이다. 더불어서, 다른 모든 비범인²⁹ 들과 다르게 최미려는 그 누구에게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녀는 토론장에서 자연법이 의도

²⁴ “The sixth commandment, “Thou shalt not kill,” is an example of such a guideline. Benjamin’s use of the word Richtschnur is very telling in this context: “Thou shalt not kill” is exactly not a law (Recht) but a guideline (Richt-schnur). A Richtschnur (which in German also is known as a Maurerschnur) is a mason’s line: a string (schnur) which is used to measure or correct (richten) out a plane for a building by the masons or bricklayers. A Richtschnur is an approximation used practically to build a house. To build a good house the masons, in general, would have to follow this Richtschnur but sometimes, because of a broken ground, a good house could only be built if the Richtschnur is ignored. By substituting law (Recht) with the almost homophone Richt, Benjamin establishe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mythic power (mytische Gewalt) and divine power (göttliche Gewalt). The commandment is not law but a guideline which in general would have to be followed for human beings to live a good life, as the masons in general have to follow it to build a good house. There might however be situations where it would have to be ignored.” Larsen, “Notes on the Thought of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²⁵ “The commandment is not law but a guideline which in general would have to be followed for human beings to live a good life, as the masons in general have to follow it to build a good house. There might however be situations where it would have to be ignored.” Larsen, “Notes on the Thought of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²⁶ “그렇다면 도대체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이란 가능한 것인가? 의문의 여지없이 그러하다.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문명화된 세계조망이 온건한 합의수단의 사용을 허락해 줄 때 그러한 비폭력적 합의는 언제나 가능하다. 또 우리는 폭력적인 모든 합법적? 불법적 수단을 불순하지 않은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예의범절, 공감, 온건함, 신뢰, 기타 언급될 수 있는 미덕들은 그러한 비폭력적 수단의 주체적 선결조건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7-8.

²⁷ “그리고 지상의 어떠한 법도 거짓이 용납될 수 있다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 속에 비폭력적 합의의 영역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란 폭력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즉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언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기만죄를 처벌한다는 식의 법적 폭력이 개입하게 된 것은 비교적 후일에 가사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8.

²⁸ “왜냐하면 기만을 금지함에 있어서 법은 폭력적 반발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비폭력적 수단의 사용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²⁹ 최미려의 용어로서, 김지용, 조현 등 작중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요한 등장 인물들.

로 하는 율법들과 정의를 대중에게 교육했을 뿐이다. 물론 그녀는 작중에서 후배 윤지숙을 시켜서 장 기자의 데이터를 훔쳐서 보도하고, 그로 인해 김삼두를 비롯한 거악이 장 기자를 죽이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정말 장 기자의 죽음이 그녀 책임인가? 김삼두는, 방 씨에게 대한 것과 다르게, 최미려에게 열차 문제를 강요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그녀의 변명을 들어보자.

“네, 맞습니다. 전 기자입니다. 아니면 기자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맘껏 욕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욕은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너희들이랑 똑같이 “기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장 기자 취재랑 똑같다고? 취재 내용을 먼저 알았다는 소린데, 왜 즉시 보도 안 했지? 장 기자 취재 내용을 듣고서 관련인과 기업에 보도 여부를 놓고 흥정을 시도한 첩보를 들었는데 그건 어느 언론사 누구지요? 장 기자가 죽고 나서 그의 취재를 이어받거나 그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때마침 기관, 기업, 각종 스폰서 분들이 오셨는데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이 최미려가 인절미 하나라도 얻어먹은 곳이 있는지.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 처먹고 기념품 챙기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기사로 흥정해 금품이나 광고 받고, 알겠냐!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너희 같은 것들이랑 같은 “기자”로 불린다는 거야!”³⁰

이 대사는 소위 취재처와 유착한 기자들을 욕하는 대사로 네이버에서 흥했지만, 벤야민의 관점에서 볼때 이 대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바로 최미려는 “숙명”과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것. 숙명은 왜 생기는가? 무협지를 비틀어 말하면, 강호에 출두하지 않으면, 은원이 생길 일도 없다. 최미려는 (본인이 비리에서 깨끗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숙명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은원을 피한다. 따라서 최미려가 방 씨의 고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성이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숙명에 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 씨의 가혹한 고문 이후에도 그녀가 방긋 웃으면서 방 씨에게 “다녀올게”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은, 사이코패스라는 기믹으로서의 그녀의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성의 상징으로서 그녀에게 숙명은 어떤 제약조건도 부과하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최미려라는 인물은 벤야민이 설명하지 않은 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벤야민은 이성에 대해 비폭력적 대화 및 교육과 관련해서 그저 언급만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벤야민의 논증만을 가지고 폭력의 반대항은 비폭력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라는 문장³¹을 바로 도출하기 힘들다.³² 그러나, 최미려가 보여주듯, 폭력의 반대항으로서의 비폭력은, 언제나 정당하고 깨끗하고 불순하지 않고 고결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게 정의인지 모르는데 정의의 입장에서 “정당한 목적과 그에 따른 정당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구분할 길이 없듯이, 비폭력 혹은 이성 역시나 비폭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한 목적과 그에 따른 정당한 수단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미려는 분명 작중 인물들의 속마음으로 말해지는 것처럼 사이코패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완전히 악의만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이성과 물리력을 동시에 갖춘 인간은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도덕은 내려두고 물리력을 택하지만, 이성을 대변해야 하는 인물로서 최미려는 언제나 그 뛰어난 분석력을 이용해서 과

³⁰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75화.

³¹ “신적인 것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폭력의 반명제를 이룬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2.

³² 예로서, 벤야민은 다음 구절처럼 종종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불순하지 않은 비폭력적 수단은 결코 직접적 해결의 수단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간접적 해결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의해 그것의 객관적 구현은 결정된다. (이 말이 갖는 광범위한 의미를 여기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8.

부장과 윤지숙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내세웠을 뿐이다. 자신은 오직 그들을 “위험” 속에만 놓았을 뿐 그 위험을 실현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니라는 정당화를 하면서. 최미려가 행한 비폭력적인 행동들이 과연 폭력에 비해 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와야 함이 명확해졌다. 그럼 이 정의는 무엇인가? 인간이 모른다고 했으니, 최소한 전지전능한 신은 알 것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신이 하신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 벤야민은 신적 폭력의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³³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코라와 그 무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서 이끌면서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끝없는 불평을 내뿜는다. 그중 레위의 증손자인 코라 및 그를 따르는 무리는 모세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³⁴ 라며 비판한다. 이에 모세는 기도한 뒤, 향로를 통해 주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한다. 이를 들은 여호와는 회중들에게 반역자의 무리를 떠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고람과 몇몇 무리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따라서 “(여호와에 의해) 그들의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³⁵ 하지만 여호와는 향로를 거룩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 지라.”³⁶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신의 폭력이 신화적 폭력이나 법제정/법수호적 폭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향로가 거룩해진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호와는 오직 선택된 자가 가져온 향로만을 거룩하다 여기고 받으신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는 여호와가 뽑은 제사장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이 바치는 향로는 여호와가 세운 법에 따르면 거룩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여호와는 그들은 죄를 범하였으나, 그 향로는 거룩해졌다고 선언한다. 즉, 여호와는 그들을 징벌하였으나, 대신 그들을 얹매고 있던 법 (선택된 자가 바친 향로만 거룩해질 것이라는 법)을 없앴 것이다.

이런 종류의 “법을 없애는” 폭력은 교육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³⁷ 어린 시절의 당신은 언제부터 가스레인지들 사용해도 부모님께 혼나지 않게 되었는가? 많은 가정은 화재 및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들이 가스레인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교육한다. 유아 입장에서 “가스레인지에 손대지 마라”는 부모님이 주신 율법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으로 가스레인지를 쳐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가? 솔직히 나는 그 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³³ “이러한 폭력의 예로 우리는 니오베의 전설과 코라의 무리에 대한 신의 심판을 비교할 수 있다. 신은 특권을 누리던 레위인을 경고도 위협도 주지 않고 내리쳐서 완전히 파멸시켰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2.

³⁴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61, 민수기 16:3.

³⁵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민수기 16:32-34.

³⁶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민수기 16:38.

³⁷ “이러한 신적인 힘은 종교적 전통 속에서 증언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생활의 적어도 한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교육의 힘은 그 완결된 모습에 있어서 법 밖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적인 힘의 구현은 반드시 신이 직접 주재하는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를 흘림이 없이 내리치는 대속의 순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제정적 폭력의 폐지로 정의될 수 있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2.

부모님은 내가 가스를 다룬다는 이유로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손을 대면 혼나는 순간과 지금 사이에는 애매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 애매한 시간 사이에 사라진 율법, 이것이 바로 신적 폭력이다. 아마 어린 시절 내가 가스레인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모님께 걸렸다면, 분명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해서 나를 나무랐을 테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 내가 성숙했다 판단하고 “가스레인지에 손대지 말라”는 규칙을 없애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적 폭력과 신화적/법제정적/법수호적 폭력의 차이는 바로 법을 없애는가 아니면 법을 만드는가에 있다. 그래서 벤야민은, 이성이 아닌 신적인 것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폭력의 반대항으로 놓는다.³⁸

비질란테에 나온 신적 폭력은 무엇일까? 아마 대속이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캐릭터는 김선옥일 것이다. 김선옥은 끝까지 김지용을 비질란테가 아닌 김지용으로 믿어주었다. 그리고 선옥은 (적어도 작중에서는) 아무 죄도 없다. 그는 그저 김지용을 믿고 최선을 다해 최미려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죽음으로서 김지용이 저지른 모든 행동의 책임을 (찬사와 죄를) 동시에 짊어졌다. 하지만, 김선옥의 죽음 그 자체가 신적 폭력으로 보기 힘든 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그는 과다 출혈로 죽었음이 암시되기도 하고³⁹, 그가 김지용의 죄를 대속한 것은 신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성을 대표하는 최미려와 현행법을 대표하는 조현의 결정으로 그는 김지용을 대속하게 되었다. 즉, 김선옥의 죽음은 신적 폭력이 아닌, 구약시대 번제물의 의미에서 속죄의 담지자로서의 어린양을 바친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아마 김선옥보다 더 유력한 신적 폭력의 후보는, 방 씨의 자살일 것이다. 최미려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작중에선 가장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유일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방 씨였다. 그는 조현에 의해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의지로 엄재협을 죽이고, 김지용을 “교육”⁴⁰하며 송곳으로 자살한다. 이 자살은 두 가지 점에서 신적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우선 작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흔적으로서 피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와중에도 이미 피 칠갑이었기 때문이다. 벤야민이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의 구분으로서 피흘림의 여부를 들먹인 것을 보았을 때, 피를 핏속에 숨긴 방 씨의 자살이야말로 그 유일한 후보가 될 것이다. 둘째로, 방 씨의 자살로 인해 조현과 김지용은 더 이상 그와 새로운 경계선(법)을 그을 이유가 없어졌다. 방 씨가 살아있었다면, 조현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 그들 사이에 새로운 법이 정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방 씨가 스스로 링 위에서 나오으로써, 새로운 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그렇기에 조현/김지용은 김선옥을 속죄양으로 해서 거약을 현행법 안에 묶어둘 수 있었다.⁴¹ 이런 법 파괴적 속성에서, 우리는 방 씨의 자살이 유일한 신적 폭력의 후보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벤야민이 신적 폭력이 언제 실현되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³⁸ “신적인 것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폭력의 반명제를 이룬다. 신화적 폭력이 법제정적이라면 신의 폭력은 법파괴적이다. 전자가 경계선을 긋는 것이라면 후자는 아무런 구애받음 없이 경계선을 파괴한다. 신화적 폭력이 죄와 보복을 가져다 준다면 신의 힘은 속죄할 뿐이다. 전자가 위협한다면 후자는 때린다. 전자가 피를 흘리게 한다면 후자는 피를 흘림 없이 치명적이다. 이러한 폭력의 예로 우리는 니오베의 전설과 코라의 무리에 대한 신의 심판을 비교할 수 있다. 신은 특권을 누리던 레위인을 경고도 위협도 주지 않고 내리쳐서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러나 파멸시킴과 동시에 신은 또한 속죄한다. 여기서 피를 흘리지 않음과 이 폭력의 대속(代贖)적 성격의 깊은 연관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피는 단지 육체적 생명의 상징일 뿐이다. 법적 폭력의 해체는(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육체적 생명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한다. 이 죄의식은 죄 없는 불행한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생명에만 사로잡히는 죄를 “대속하게” 하고 따라서 죄지은 자를 정화하는 – 정화해 주되 그의 죄를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만든 법을 씻어버리는 – 그러한 “보복”을 행한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2.

³⁹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135화.

⁴⁰ “젊은이가 보고 깨닫는 게 있으시길...”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마지막화.

⁴¹ 이는 “서로 원하는 것 갖기로 해요”라는 비서실장의 대사에서 드러난다.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엔딩-최미려편.

고 본 것처럼, 위 두 근거만을 가지고 방 씨의 자살이 신의 폭력임을 확신하긴 힘들다.⁴² 기독교에서 자살이 정말 큰 죄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작가가 일부러 아이러니를 의도한 것이 아닐까?

벤야민은 폭력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모든 법수호적 폭력은 적대적 대응 폭력을 탄압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폭력의 법수호적 기능)이 대변하는 법제정적 폭력을 간접적으로 약화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점의 다양한 증후는 이 글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법수호적 폭력에 의한 탄압은 얼마 동안 지속되지만 결국 새로운 힘 혹은 이제껏 억압된 힘이 법제정적 폭력으로서 자신을 지배하던 것을 이기고(그 자체도 결국 쇠퇴하고 말 운명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⁴³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비질란테의 줄거리를 정리해보자. 김지용(법 제정적 폭력)이 자연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상태에서, 조강옥(신화적 폭력)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악의 말단인 김삼두/엄재협(실정법을 형해화하는 또다른 법 제정적 폭력)을 건드리면서, 거악과 시민들 사이에 그어진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최미려(이성)는 비질란테(법제정적 폭력)를 이용해서 그 새로운 법의 제정을 도우려 한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악은 조현(실정법)을 시켜서 이들을 중지시키려 한다. 하지만 실정법의 화신으로서 조현은 “법” 그 자체의 수호자일 뿐, 법의 도덕적 목적을 담지하지도, 그렇다고 엄재협과 거악이 원하는 목적을 담지하지도 않는다. 그의 처지에서 김지용(법 제정적 폭력)은 자신을 이어서 법 그 자체를 담지할 수 있는 후보이므로, 그를 회유하려 한다. 엄재협은 조현이 말을 잘 듣지 않자 김삼두를 이용해서 방 씨(숙명)를 움직이고, 방 씨는 본인이 숙명에 잡혀있는 만큼이나, 김지용을 숙명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지만, 결국 엄재협을 죽일 수 없는 조현(실정법) 대신 처리해주면서 김지용(법 제정적 폭력)이 조현(실정법)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둘은 남미로 떠나서 쇠돌이의 딸을 구해내고 김지용(법 제정적 폭력)은 조현(실정법)에 편입되어 일한다. 결국, 비질란테가 보여주는 것은, 사적 제재, 혹은 양형 부당의 문제가 아니라⁴⁴ 법수호적 폭력과 법 제정적 폭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관한 한 예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경찰, 기자와 범죄자로 의인화함으로써 벤야민 텍스트의 모든 것 뿐 아니라 빠진 개념들을 보충한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조현이 이긴 것처럼 보일테지만, 사실 거악도 살아있고, 김지용도 살아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저 또 다른 바뀐 법에 도달 했을 뿐이다. 폭력의 다양한 형태들을 – 법제정적/법수호적/신화적 폭력, 그리고 얼핏 보이는 신적 폭력까지 – 보여주고 독자에게 선악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서사의 기준은 바로 “중심 질문을 인물과 사건 속에 감추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작품의 대중성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중심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는 순간 독자는 서사에서 배격된 자신의 경험과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결국 자기 확신의 강화 이외의 어떤것도 텍스트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 자신의 성장은 독자가 서사 속에 이입하고, 인물들의 상황에서 “역지사지”함으로써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마블코믹스가 하는 것처럼, CRG 작가와 김규삼 작가 역시 복잡한 질문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눈에 띄게

⁴² “언제 이러한 순수한 폭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일이 있는가를 말하는 일은 인류에게 가능하지도 않고 절박한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속죄적 기능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의 폭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출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의 폭력이 아니라 신화적 폭력만을 확신을 가지고 폭력이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4.

⁴³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p.13-14.

⁴⁴ 예로서, 작가는 그 어디에서도 양형을 결정하는 사법부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장치는 현실에서 따온 사건들일 것이다. 물론 작가는 현실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작품은 조OO, 화순 서라야파트 살인사건,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밀양 사건, 버닝썬, 경비원갑질, 공무원의 자살 위장 등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난 다종다양한 사건들을 모티브로 따온다. 이는 두가지 효과를 불러왔는데, 서사로서의 통시적 일반성을 포기한 대신, 범죄 그 자체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를 줄여서 짧은 시간안에 상황을 이해시키고 분노시킴으로서 독자들이 김지용을 비롯한 주연들의 행적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작중 인물들이 내뱉는 사이다 같은 대사들일 것이다. “고마워. ㅏㅏㅏ로 남아있어 줘서”⁴⁵,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⁴⁶, “아 참, 그리고 다음부터 반말하지 마. 알았어?”⁴⁷ 이런 사이다 대사들은 마치 현실의 사법부, 경찰 및 범죄자들을 비판하는 풍자로 이해되면서 무거운 주제에 비해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다. 물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장치로 좋았던 부분은 인물들 간의 싸움 장면일 것이다. 비질란테의 싸움 장면은 드라마나 영화화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매우 현실적이다. 적어도 작 초반에는 싸움과 그 결과들이 개연성이 있게 보인다. 물론 중반 이후에는 조현, 방 씨, 및 쇠돌이의 무력이 초인적으로 강해서 악당과 선인들 간의 힘의 균형이 붕괴가 된 측면은 있지만, 이는 “슬램덩크” 정우성의 실력처럼, 점점 악당들의 능력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치못할 상황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순 및 아이러니를 기믹과 개그를 위해 여러 곳에서 사용했다. 조강욱/최미려의 공격으로서의 키스(사실 이건 나의 아저씨에 나온 아이유의 이선균에 대한 공격 키스의 오마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및 남영욱의 “관상은 과학이라고”라는 대사와, 그에 대비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력. 누구보다 사람을 잘 죽이는 방 씨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설정. 조현이 경찰 창고에서 경찰봉 대신 기타를 꺼내 노래 부르는 것,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한 방 씨의 자살 등이 그 예이다. 특히나, 벤야민이 문제 삼았던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이란 도그마를 작중에서는 역으로 조현을 통해 “내 말을 들어.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법에 모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옳은 길로 간다는 것을.” 라고 표현한 것도 작가가 이용한 아이러니의 한 예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내용을 140화 남짓한 짧은 분량에서 긴장감있게 (지루함 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는 비질란테를 2020년 최고의 서사로 여기고 추천하고 싶다.

P.S. 이 글은 비질란테와 비교하기 위해 꽤 단정적 해석을 내렸지만, 사실 벤야민의 글은 데리다, 지제크, 아감벤 등이 계속해서 새롭게 읽어내려온 모호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나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보고 싶은 분들은, 벤야민의 원문과 더불어 (원문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진태원 역이 아닌 이성원 역은 저작권이 있어서 풀려있지 않은 듯 하다) 데리다의 “법의 힘”, 그리고 지제크의 “LANGUAGE, VIOLENCE AND NON-VIOLENCE,” 아감벤의 해석을 다룬 “Towards the Critique of Violence: Walter Benjamin and Giorgio Agamben (Bloomsbury Studies in Continental Philosophy)”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⁴⁵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1화.

⁴⁶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43화, 57화, 87화, 137화.

⁴⁷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87화.

References

- Benjamin, Walter. “Critique of Violence, 폭력 비판을 위하여”. English and 한국어. Trans. by 이성원.
In: *자율평론* 3 (2002).
- CRG and 김규삼. *비질란테*. 네이버 웹툰. Naver, 2020.
- Encyclopaedia Britannica, The Editors of. *Niobe*. Britannica, T, 2020. URL: <https://www.britannica.com/topic/Niobe-Greek-mythology>.
- France, Anatole. *The Red Lily*. Le Lys Rouge. 1894. Chap. 7.
- Larsen, Signe. “Notes on the Thought of Walter Benjamin: Critique of Violence”. In: *Critical Legal Thinking* (2013). URL: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13/10/11/notes-thought-walter-benjamin-critique-violence/>.
- Thomson, Judith Jarvis. “The Trolley Problem”. In: *The Yale Law Journal* 94.6 (1985), pp. 1395–1415.
URL: <https://doi.org/10.2307/1969915>.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61.